

수능 문학 백서

갈래 복합

SEASON2
서성수T

사과나무학원



INDEX

01 적용

P 1

02 답

P 1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적 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 이었다.

그러한 정밀¹⁾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나)

이럴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A]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B]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C]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 도박이자 도반²⁾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호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㉔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㉕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 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여휘 풀이]

1)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2)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뱃’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③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①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 풀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희 곳 몹(木)의 슬(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호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
호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라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호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호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혼돌 내 분(分)으로 누얼너나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7.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8.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빋 곳 ㅍㄴ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9.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1. ㉢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식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썰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오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

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

만 혼자 닳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을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

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흰했다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떼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이 서서

마음아, 너고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2 - 생가(生家)>

(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

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쪼고 가지

는 구불구불 뺨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

두 열두 개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

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싸싸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

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

꺾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

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

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

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

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摘文院 老樞記)>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1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고 있군.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③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각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각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16.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와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생: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툼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 건너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제넘게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예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흠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돈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태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¹⁾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²⁾ 흥정 구문 먹기 ㉤핀잔 듣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
 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감언이설 꺾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두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낭자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
 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
 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
 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
 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
 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
 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
 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
 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
 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뻑뻑하
 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
 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뻑뻑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
 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
 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
 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
 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
 와 다를 것인가?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
 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
 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
 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
 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
 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쓰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어휘 풀이]

1)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2) 가대(家袋):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뒷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재물을 모은 공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꾀는 수단이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은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④ ㉢은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은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⑤ ㉢은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제 나는 한밤중에 한 줄기 황하를 아홉 번 건넜다. 황하는 장성 밖에서 나와 장성을 뚫고서 유하와 조하, 황화와 진천 등 여러 물줄기를 한데 모아, 밀운성 아래를 지나면서는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를 타고서 백하를 건넜는데, 이곳의 하류이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 불벌 속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강물이 앞에 나오는데, 붉은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며 그 끝 간 데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개 천 리 밖에 폭우가 내린 때 문이었다.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길래,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고개를 우러러 하늘에 묵묵히 기도를 드리려는가 싶었다. 나중이야 알았지만, 물을 건너는 사람이 물이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며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 몸조차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은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만 같아 문득 어찔해지며 빙글 돌아 물에 빠지게 되다는 것이니, 그 머리를 우러름은 하늘에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어느 겨울에 경각에 달린 목숨을 묵묵히 빌 것이라. 그 위태로움이 이와 같은데도 강물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들 요동 평야는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모르고서 하는 소리다. 요하(遼河)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낮에는 능히 물을 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온통 위험한 데로만 쏠려서 바야흐로 부들부들 떨려 도리어 그 눈이 있음을 근심해야 할 판인데 ㉢어찌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매, 눈에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자 위태로움이 온통 듣는 데로만 쏠려서 귀가 바야흐로 덜덜 떨려 그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제야 ㉣를 알았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이제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혀 뒷수레에 실리고 보니, 마침내 고삐를 놓고 강물 위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올려 발을 모으자,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강물이었다.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옷을 삼고 강물

로 몸을 삼고 강물로 성정을 삼아 마음에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나자 ㉤내 귓속에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을 건넜으되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마치 앉은자리 위에서 앉고 높고 기거하는 것만 같았다.

예전 우임금이 황하를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저지극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살고 죽는 판가름이 먼저 마음에 분명하고 보니 용이고 도마뱀이고 그 앞에서 크고 작은 것을 헤아릴 것이 없었다. 소리와 빛깔은 바깥 사물인데 바깥 사물이 항상 눈과 귀에 탈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만듦이 이와 같다. 그러니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황하보다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통이 됨에 있어서이겠는가? 내 장차 산중에 돌아가 다시 앞 시내의 물소리를 듣고 이를 징험하여, 장차 몸놀림에 교묘하여 스스로 총명하다고 믿는 자를 경계 하리라.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¹⁾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²⁾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³⁾은 주인에게서 각

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어휘 풀이]

1) 노둔(老鈍)하고 -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며 둔하고. 2) 준마(駿馬) - 빠르게 잘 달리는 말. 3) 비복 -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는 사람들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 낮에 물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시각에 정신이 팔려 물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 ③ ㉢: 글쓴이는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함으로써 감각에서 오는 공포를 극복하고 있다.
- ④ ㉣: 글쓴이는 말을 고를 때 말을 선택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 빌린 물건일 때보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일 때 심리 변화가 더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험적 자아는 글쓴이가 경험을 하는 시점에서 존재하는 자아를 의미하고, 서술적 자아는 글을 쓰는 시점에 존재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경험은 글 속에서 무질서하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거리로 작용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① (가): ㉡는 과거 요하를 건넜던 경험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때의 ‘나’는 경험적 자아라고 볼 수 있군.
- ② (가): ㉢에서 ‘나’는 황하를 건너는 시점에 존재하는 경험적 자아로서, 경험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군.
- ③ (가): 글쓴이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과거 경험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군.
- ④ (나): ㉣에서 ‘나’는 현재 <차마설>을 짓는 시점의 자아이므로 ㉢의 경험적 자아인 ‘나’와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나): 글쓴이는 말을 빌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 거리를 가짐으로써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고 있군.

25. (가)의 ㉠ 와 (나)의 ㉡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도'와 달리 (나)의 '뜻'은 감각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의 '뜻'과 달리 (가)의 '도'는 이성보다는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의 '뜻'과 달리 (가)의 '도'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의 '도'와 (나)의 '뜻'은 모두 소유한 바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의 '도'와 (나)의 '뜻'은 모두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인간 마음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 답 ②

㉠ (가)에서는 색채어 ‘푸른’이 3연, 4연, 5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1연과 3연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을 것이다’와 2연에서 ‘~이(가) 아니었으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명시적 청자로 설정된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는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에서 사라져 가는 대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사라져 가는 대상이나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관조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에서는 세태를 관망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 (나)의 경우 대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다)의 경우 글쓴이가 이홍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므로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답 ①

㉠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해들 적마다’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모습이 천년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이를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는 것은 인간 역사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단청의 ‘두리기둥’의 틈에 벌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가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주춧돌’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는 것과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은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달려진 문’이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답 ③

㉠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명 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것은 수양의 가지와 뿌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손을 터는’ 것은 꽃과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고집 센’은 ‘비’의 성격을, ‘도리 없는’은 ‘폭설’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지로 하여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비’나 ‘폭설’이 아니라 ‘담’이다. 따라서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은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담 밖을 가뒤편’ 것은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무명에 획을 긋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가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담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알았다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대상들, 즉 뿌리, 꽃과 잎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비, 폭설, 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는 수양과 마찬가지로 담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관계를 앞에서 언급한 뿌리, 꽃과 잎의 의미나 비, 폭설, 담의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는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상황이다. 글쓴이는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 글쓴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에서 글쓴이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던진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먼 것’과 ‘가까운 것’, 그리고 ‘새것’과 ‘옛것’은 모두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처럼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는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잊음에 대한 생각, 즉 대조적 관계를 지닌 대상 중에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잊게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잊어야 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늘이 내리는 별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질시의 눈길을 받거나, 귀신이 내리는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잊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

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답 ②

㉠ (가)에서 '문'은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여 있는 '천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모습을 보인다. (나)에서 '가지'는 담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담 밖'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벽이 오는 순간 닫힌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가지'는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문'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에서 화자는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지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문'이 외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가지' 역시 외면의 변화나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 '문'이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서 '가지'가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⑤

㉠ (나)에서 화자는 '담'이 가지에게는 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박'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담'이 '가지'에게 양면적 속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① (나)에서 화자는 '수양'을 '가지', '뿌리', '꽃과 잎'으로 나눠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혼연일체'라고 말하여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② (다)의 2문단에서는 '잊어도 좋을 것'에 대해, 3문단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3문단에서 글쓰이는 효심, 충성심, 의로움, 예의, 분수, 도리 등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쓰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으로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꼽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담쟁이 줄기'가 담을 타고 올라가 담을 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의 4문단에서 글쓰이는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내적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외적인 것'은 잊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7) 답 ①

㉠ <제1수>의 '산수 간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일상의 공간이다. <제6수>의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에게 '님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제2수>의 '보리밭 풋늑물'은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제3수>의 '잔' 역시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의 '그 나은 너나은 일이야 부롤 줄이 이시라'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바윗 곳 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해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5수>에서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④ <제3수>에서의 '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은자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3수>에는 '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8) 답 ③

㉠ <제3수>에서 화자는 '외'를 바라보는 감흥이 그리운 임이 오는 반가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외'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외'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에서는 '산수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거처하고 있는 화자를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이 대비되면서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바윗 곳 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화자는 속세의 일을 '너나은 일'이라고 말하며 '너나은 일'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상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9) 답 ①

㉠ ‘나’는 자신이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며, 이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가치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나’는 산림에 사느냐, 시정에 사느냐와 명리에 마음을 두느냐, 은거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나’는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인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는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큰 즐거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나’는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든 작은 즐거움이든 ‘즐거움’에,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든 작은 부끄러움이든 ‘부끄러움’에 대응시키고 있다.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것이다.

10) 답 ⑤

㉠ ㉠에서 화자는 자신을 ‘하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자연 속에서 거처하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말이 ‘물정을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른,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한 것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에서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서 글쓴이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이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11) 답 ④

㉠ (나)의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선인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에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한편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에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

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나)에서는 부정적인 ‘외’를 반갑고 좋은 대상으로 여기며 그것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에서 ‘산림’은 큰 부끄러움을 누릴 수도, 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산림’을 자연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에서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을 나누고 그중에서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에서는 본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만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짓고 있다.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는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12) 답 ③

㉠ (가)에서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자랑’이나 ‘힘’처럼 북방에서 지니기를 기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지닐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살얼음 아래에 보이는 ‘물고기네 방’을 ‘생가’에 빗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유년 시절에 살았던 생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는 비유를 통해 유년 시절의 생가에 느끼는 서글픔을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가축과 인간과의 관계에 빗대어 늙은 나무도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가)~(다)는 모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나)와 (다)에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 (가)에서는 북방에서 떠날 때, 북방으로 돌아올 때처럼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나)와 (다)는 모두 역사적 상황에 대해 묘사하지도,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 ㉣ (가)의 ‘아, ~ 없다’, (나)의 ‘마음아, ~ 있는가’, (다)의 ‘아! ~ 모면하였다.’는 모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가)에서는 과거 북방을 떠날 때의 장면에 향토적 소재가 일부 쓰였지만, 이는 북방을 떠나는 화자의 괴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자

신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는 과거에 대한 글쓴이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3) 답 ①

㉠ (가)의 '태반'은 화자에게 뿌리와 같은 공간으로, 여기서는 '복방'을 의미한다. 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복방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며 허무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나)의 '생가'는 화자가 유년 시절 보냈던 곳으로, 화자는 '물고기네'가 사는 공간을 보며 자신의 생가를 떠올린다. 그런데 화자가 그곳을 볼 때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화자가 '생가'로 인해 시린 느낌, 즉 서글픔을 느낀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의 화자는 돌아온 '태반'에서 이전과 달라진 괴리감을 느꼈지만, 작품에서 화자가 '소외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서글픔을 유발하는 공간이지만, 작품에서 화자가 어린 시절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가)에서 '태반'은 화자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공간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 '생가'는 추억 속의 공간으로,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④ (가)의 화자는 '앞대'에서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태반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막상 도착한 태반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그립고 서러운 곳으로,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에게 '태반'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 생명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지냈던 곳으로, 생명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14) 답 ④

㉠은 화자가 복방을 떠나 '앞대'로 떠나올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은 화자가 '앞대'에서의 괴로운 삶을 견딜 수 없어 다시 복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① ㉣에서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과 같은 여러 민족과 나라, '흥안령', '음산', '아무르', '승가리'와 같은 여러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복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자작나무', '이깔나무', '갈대', '장풍'과 같은 나무와 풀을 의인화하여 복방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투영해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이 ~을 ~니 것도'와 같은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복방의 민족들과 이별하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복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에서는 화자가 복방에서 보고 싶고 지니고 싶은 것들을 나열한 후 그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복방에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15) 답 ④

㉠ 화자는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보며 그 모습에 자신의 유년 시절 생가에 대한 기억을 투영하고 있다. 화자는 어미 물고기가 좁은 돌 틈새로 어린 물고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

습을 보았다. 그리고 돌 틈 사이에 '빠곡히 서' 있는 '물고기네'를 보며 그들이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공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습은 화자를 보고 놀라 좁은 틈에 숨은 물고기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자, 화자가 유년 시절 생가의 좁은 방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지냈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고독하게 지냈던 유년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은 아니다. ㉡ ① 화자는 '투명한 창', 즉 살얼음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며 '나의 생가'와 같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 보고 있는 것이다. ② 화자는 '물고기네'를 유년 시절의 자기 가족과 겹쳐 보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창으로 나를 보'고 놀라 '사방 쪽방으로 흩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생가의 식구들'이 어른이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③ 화자는 물고기들을 보며 '젓을 갓 댄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유년 시절 생가에서 어린 형제들과 함께 놀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⑤ 화자는 '물고기네'의 모습을 보며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아직도 생가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6) 답 ⑤

㉠ ㉠은 투명한 살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길을 가다 물가에서 이 창을 보게 된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 ㉡는 늙은 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놓은 것으로, 글쓴이는 무성한 나무에 여러 기둥이 받쳐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기둥을 보며 이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이처럼 ㉠은 물속을, ㉡는 나무를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① ㉠은 물속 존재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을 자극할 뿐, 불안을 심화하지 않는다. ㉡는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궁금증을 유발할 뿐,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고 있지는 않다. ② ㉠은 화자가 직접 보고 있는 살얼음일 뿐,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도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할 뿐,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③ ㉠과 ㉡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④ ㉠과 ㉡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17) 답 ③

㉠ 글쓴이는 동료에게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의 특이함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풀과 나무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대개 풀과 나무는 제각기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뭇들은 열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가지를 지니고 있고, 풀들은 말밭굽이나 수레바퀴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땅바닥에 붙어 자란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문원 동쪽의 늙은 나무는 사람이 받쳐 준 기둥이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처럼 '풀과 나무'가 지닌 '몸을 보존하는 계획'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고, 그 결과 이 나무가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 곁을 산책할 때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는 기분’을 지녔다고 했는데, 이는 나무가 글쓴이에게 바쁜 근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안식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④ 글쓴이는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면 인간이 ‘뚝으로 잘라’서 암소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에 해당한다. ⑤ 글쓴이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처럼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달리 ‘이문동 동쪽 늪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 곧 인간의 도움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18) 답 ①

㉠ (가)는 공생원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나열하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라는 주제를, (나)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부지런한 농부와 가난한 농부의 말과 행동을 대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의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와 같은 부분에서 대구적 표현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가)에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봄’, ‘여름’, ‘가을걷이’ 등 계절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지만,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가)는 인물의 부정적 행동을 나열하며 해학성을 유발하는 속성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19) 답 ②

㉠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흠어 놓고’,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를 통해 공생원이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공생원이 재물을 모았다가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를 통해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뜯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와 연결하면 ‘청질’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가에 부정적인 청탁을 하는 것이므로, ㉡은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대 흥정 구문 먹기 핀잔 듣고 자빠지고’는 집이나 땅을 증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핀잔을 들은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은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⑤ ‘강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로, ‘부자나 후려 볼까 강언이설 꾀어 보자’를 참고할 때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꾀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0) 답 ⑤

㉠ (나)의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를 통해 ㉡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통해 ㉢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의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를 통해 ㉡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잘 가꾸어져 백백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를 통해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대상은 ㉡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제 아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를 통해 ㉡는 부모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가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떨어져 낙심했기 때문이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 ③ (가)의 ‘훈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를 통해 ㉡가 훈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 ㉡가 과거 시험에 뜻을 이루지 못해 수치를 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의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를 통해 ㉡는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들을 비웃고 아녀자들을 조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를 통해 ㉡는 과거 시험의 실패라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1) 답 ②

㉠ (나)는 고전 수필인 설(說)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경험,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바람직한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다. (나)에 글쓴이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① (나)에서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여,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태도와 손을 놓고 게으르게 지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글쓴이가 파산의 들판 풍경을 보고 던진 질문에 대한 마을 노인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파산의 들판에서 관찰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나)의 마지막 문장인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한 것에 해당한다. ㉤ ⑤ (나)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에 임하는 농부들의 대조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글쓰이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학문에 임하는 선비들의 자세로 확장하고 있다.

22) 답 ⑤

㉠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글쓰이가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대상은 게으른 농부가 아닌, 포기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기 바라는 선비들이다. ㉡ ① (가)의 ‘공것’은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을, ‘뜯재물’은 뜻하지 않은 기회에 우연히 얻은 재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공생원의 태도와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은 큰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공납’은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다. ‘공납 범용’은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근본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게으른 농부는 어차피 농작물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으며, 한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은 노력해도 불행한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론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의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를 통해 공생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넉넉한 상황이었지만 친구들에게도 인색하게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는 부지런한 농부가 큰 가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답 ④

㉠ ㉡은 준마를 선택할 경우 의기양양하게 질주하다 보면 말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글쓰이가 말을 고를 때 말을 선택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음을 후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요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를 통해 사람들이 요동 평야가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낮에는 능히 물을 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온통 위험한 데로만 쏠려서’를 통해 ㉣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음에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나자 내 귓속에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를 통해 ㉣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휘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를 통해, 빌린 물건의 경우에도 심리 변화가 큰데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답 ③

㉠ (가)의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면 과거 요하를 지나는 경험을 먼저 제시해야 하고, 현재 황하를 건너는 경험을 나중에 제시해야 하지만, 글쓰이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을 시간의 순서와 다르게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① ㉢는 ‘나’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을 때이므로, 이는 과거 요하를 건넜던 경험과 관련된 경험적 자아라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나’는 황하를 건너는 시점의 경험적 자아로서,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나)의 ㉠를 글쓰이가 현재 <차마설>을 쓰는 시점으로 본다면, ㉡에서 과거 말을 빌려 댔던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경험적 자아인 ‘나’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간적 거리는 반성적 거리로 작용하여 진정한 소유란 없으므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참되고 바른 삶이라는 통찰로 확장되고 있다.

25) 답 ⑤

㉠ (가)에서는 감각에 의하여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나)에서는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릇된 소유 관념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도’와 ‘뜻’의 공통점은 외물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① (가)의 ‘도’에만 해당한다. ② (가)에서 글쓰이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이성적 지식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의 ‘도’와 (나)의 ‘뜻’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나)의 ‘뜻’에만 해당한다.



사과나무학원

SEASON2
서성수T